

복구, 일자리 매칭데이 운영...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추진

광주 복구(구청장 문인)가 지역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9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일자리 매칭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매칭데이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경영자총협회 ▲동강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제대근로복지센터 ▲국제직업전문학교 등과 협력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고 참여자 접근

성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2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오프라인 일자리 매칭데이'는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행복여울림센터에서 열리고 이날 행사에서는 '일자리정책 홍보관', '취업특강', '채용 컨설팅 및 1:1 모의 면접(금융기관·공기업 등 10개 업체 참여)', '구인 기업(4개 업체 참여) 현장 채용 부스',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일자리와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가 구직자 250여 명을 대

상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일자리 매칭데이'는 '사람인' 사이트에 개설된 '복구 전용 채용관'을 통해 오는 9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운영되고 이 기간 동안 해당 사이트에는 '구인 기업 채용관', '업종·연령대별 맞춤형 채용정보', '인재 검색' 등 기업과 구직자에게 필요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오프라인 매칭데이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구글 폼을 통해 선차

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매칭데이는 복구 전용 채용관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 참여 신청이 상시 접수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일자리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복구구청장은 "이번 일자리 매칭데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 구직자가 바라는 일자리가 지속 매칭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남구 '북카페 토·일요일 개방' 이용자 급증

광주 남구청사 1층에 있는 북카페 주민들의 학습 및 만남의 공간으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최근부터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이 문을 닫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북카페 시설 개방을 확대하면서 이용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남구청 북카페는 지난 2022년 1월 25일 개소 이후 아이를 동반한 가족을 비롯해 학생들과 직장인 등 사이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민원실을 방문한 주민들이 대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북카페에서 독서 및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고, 백운광장 주변 유동 인구 증가로 남구청 북카페가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개소 첫해인 2022년에는 2만1,634명이 다녀갔고, 2023년에는 전년보다 3,000명 가량이 증가한 2만4,645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1만5,778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북카페 이용자 추이에서 주목할 점은 7월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북카페 문이 열리면서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평균 2,100여명 수준이던 이용자 수가 7월 한달에만 3,521명으로 증가해 올해 연말계가 되면 3만명도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와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아동 소파와 아동도서, 웹툰까지 갖춘 키즈존을 조성해 운영 중이고,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기와 글자 크기를 키운 대활자본 도서까지 비치해 놓은 상태다. 또 1만여권의 방대한 도서를 보유 중인데, 1년에 4차례씩 분기별 수요 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희망 도서와 신간 도서를 구매하면서 도서 목록 다양화도 꾀하고 있다. /정희태 기자

광산구, 각 나라 언어·문화 이해하는 다국어 교실 운영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가이주 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소통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야호 초록빛 새싹학교 '다국어교실'을 운영한다.

광주 외국인 주민 절반 이상이 광산구에 거주하면서 실제 가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중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광산구는 이러한 상황에 이주 배경 청소년이 이중언어 능력을 향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국어교실'을 마련했다.

다국어교실은 지역 초·중학생 및 이주배경·다문화가정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의 과정으로 운영한다.

다국어교실 프로그램은 각 나라의 기초 문해교육과 문화·예술 놀이로 구성했다. 중국어교실과 베트남어 교실은 9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하며, 러시아어 교실은 9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다국어교실은 교실별 선착순 10명 모집하며, 네이버폼(<https://naver.me/GbDKiKU3>)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 무료.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교육도서관과(062-960-3950)로 문의하면 된다. /서기만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최근 서구문화센터 2층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운영했다. /서구청 제공

서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최근 서구문화센터 2층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운영했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

을 강화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진행됐다.

1차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직·소양 등 윤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2차 교육은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공동주택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다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동주택 내

분쟁이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18년부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주택과(062-360-736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가영 기자

동구, 갱년기 건강교실·걷기 지도자 양성

신체·정신적 변화 극복...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갱년기 건강교실'과 '걷기 지도자 2급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갱년기 건강교실'은 중년 이후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대상은 만40~64세 동구 주민으로 프로그램은 오는 9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오전 10~11시30분) 조선이공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갱년기 증상 이해 교육, 근력 강화 신체활동, 영양 교실 등이다.

'걷기지도자 2급 양성과정' 역시 주민들에게 걷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한다. /이유민 기자

오는 9월 23~25일(오후 1시~5시 30분)까지 3일간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진행되며 걷기운동의 이론과 실기 등을 배울 수 있다. 연령제한은 없으나 자격증 발급 비용 3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정원에 맞춰 선착순 모집하며 관심있는 주민들은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062-608-3274, 3276)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유민 기자

【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 명단 】

대학명(가나다순)	설립	지역	유형	비고	대학명(가나다순)	설립	지역	유형	비고
건양대	사	충남	단독		연세대(미래)	사	강원	단독	유지*
경남대	사	경남	단독		영남대-금오공대	사·국	경북	연합	
경북대	국	대구	단독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사	초광역 ²⁾	연합	
동명대-신라대	사	부산	연합		원광대+원광보건대	사	전북	통합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사	전남	연합		인제대	사	경남	단독	유지*
동아대-동서대	사	부산	연합		전남대	국	광주	단독	유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사	초광역 ¹⁾	연합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승강기대	국공사	경남	통합(연합)	
대구한의대	사	경북	단독		충남대+한밭대	국	대전	통합	
목포대	국	전남	단독		한남대	사	대전	단독	
순천향대	사	충남	단독	유지*	한동대	사	경북	단독	유지*

1) 대구-광주-대전 / 2) 울산-경남 / * '23년 본지정 평가 미지정 대학으로 예비지정 자격 유지 결정
■ 국립 일반대 / ■ 사립 일반대 / ■ 전문대